

교수님 면담 / 연구실 탐방 (2013년 공대 소식지)



Q: 교수님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1970년 생으로 서강대학교 전자계산학과 (현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Syracuse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05년 중앙대학교 교수로 처음 교단에 서게 된 이후, 2006년부터 제 모교인 서강대학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Q: 공학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인터뷰를 위해, 제가 지금까지의 뉴스레터에서 각 과의 우수 Lab실 소개 기사를 모두 읽어봤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이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에 딱히 뭐 더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없네요. 다만 요즘

신문기사를 보면 많은 학생들이 현재 한국의 상황을 지옥으로 비유하며 힘들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1인당 GDP 3만불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서 지옥이라니!’ 라고 일갈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의 상황을 들어보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처한 상황이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더불어 더 절망적인 것은 별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청년들에게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방이 벽으로 꽉 박혀있는 것과 같은 느낌, 우리 때는 그래도 대학시절 낭만이 있었는데, 이 살벌한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그나마도 사치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평생을 통해 너무도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살아왔기에 젊은 시절의 낙담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무수히 바닥을 쳐 본 사람은 나름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좀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세상을 살면서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패에 유달리 강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실패가 트라우마가 아닌 자기 인생의 자산으로 바꾸는 분들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은 실패라고 해도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를 통해 거기에서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천재들도 실패를 합니다. 제 생각에 성공이나 실패냐는 능력 문제가 아니라 확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확률을 어떻게 높이느냐,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이 시도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공학적 현실은 ‘fast follower’ 전략을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는 방향이 명확하고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에 도전하는데 실패의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무한경쟁의 시기,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극한의 상황이라면 오히려 마음을 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실패하면 다음 기회란 없다지만 그러나 다른 기회는 만들면 얼마든지 있다는 배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럼 당신은 정말로 잃을 게 없다” 는 잡스의 유언 같은 이 한마디는 정말로 울림이 큰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타고 넘어 세계를 상대로 먼저 치고 나가려면, 실패에도 좀 더 관대해져야 하고 심리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실력이란 성공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빛나는 법이라 믿는다면 말입니다. 세상에 ‘청년몰락’이라는 말은 없는 이유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헬조선’ 과 ‘흙수저’가 비록 현실이라고 해도, 원래 청춘이란 젖은 날개로 세상을 나는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조금 더 기운들 내기 바랍니다. 원래 자화자찬이란 쓸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유일 한 특권이라 하던데,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자부하면서 말입니다.



Q: 제자이자 후배인 서강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어떤 분의 수필에서 읽었는데 그분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아쉬웠던 것이 세 가지 용기가 부족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는 실수해도 되는 용기, 미움 받아도 되는 용기 그리고 평범해도 되는 용기입니다. ‘이런

용기가 있었다면 삶이 더 풍요로웠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시던데요. 서강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에게도 정말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용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살벌한 현실이지만, 만약 자신만의 빛나는 가치를 주목하게 되면 바로 이런 차이가 차별화된 나만의 스펙트럼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나, 요즘처럼 모두가 다그치고, 싸울 준비가 된 듯한 긴장된 세상에서는요. 이제 그 지겨운 스펙 경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만의 인생 스펙트럼으로 승부를 걸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류스타만 스타가 아니지요. 제 눈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자기만의 특성이 있는 스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합심해서 감동의 어울림을 이루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빛나는 아름다운 '별이 빛나는 밤'이 되도록 해야 할 텐데, 현실은 등수경쟁, 학점경쟁, 스펙경쟁 등 용호상박의 싸움판만을 부추기면서 '별들의 전쟁'을 조장하고 있으니 정말이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살풍경한 경연 속에서 살지만 언젠가는 찬란한 협연을 할 날이 꼭 오겠지요.



Q : 교수님의 최근 관심 연구 분야는 무엇인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이론을 네트워크 운영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게임이론에서는 이해가 대립하는 상황에서의 합리적 행동의 기준으로서 종래 생각해오던 최적화의 원리 중 그 어느 것에도 볼 수 없던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게임이론 그 자체가 수학을 기반으로 사회과학적 방식으로 답을 찾아가는 형식을 취합니다. 부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게임이론은 경쟁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현대에 와서 게임이론은 예술과 문학, 의학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게임이론은 단순한 이론 (theory)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수많은 이론들이 모여 다양한 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방법론으로 진화하였기에 게임 패러다임 (game paradigm)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Q : 교수님께서 진행 중이신 기술, 연구 개발 중에 들어가는 교수님만의 신념이 있나요?

우리는 변해가는 시대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와 동시에 또한 불변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기술이나 요령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스승의 관점과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리더쉽의 기본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교수님 Lab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논문을 많이 읽습니다. 요즘은 산학협력이 강조되는 시대이지만 제 철학은 그래도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고 인류지성의 영역을 좀 더 넓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술 논문을 많이 읽고 자신의 논문을

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학부생은 학점으로 말하고 대학원생은 논문으로 말한다” 는 표어처럼 좋은 논문을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랩 운영도 여기에 맞추어 대학원생과 지도교수의 1:1 지도를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는 과정은 학부과정에서 학점을 따는 것과는 또 다른 패러다임을 요구합니다. 학점 좋았던 학생들이 다 좋은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학점이 별로 좋지 못한 학생도 얼마든지 훌륭한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리그입니다. 혹시 학부시절, 학점이 낮아 고민하시는 학부생이 있다면, 우리 랩으로 와서 논문으로 인생역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